



김성섭 / 국방부 획득개발국장

1천만 이산가족을 모고온 6·25가 발발한지도 어언 마흔 두돌을 맞게 되었습니다. 당시와 오늘날 우리 방위산업 현주소를 비교해볼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의 발자취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의 방위산업은 지난 '70년대초 自主國防의 절대적 필요성과 重化學工業 육성정책에 맞물려 胎動하였습니다. 이후 팔목할만한 성장속에 '80년대 중반까지 재래식무기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양산, 배치하고 있으며, 현재 단거리 地對地 유도탄과 구축함등 일부 고도정밀 병기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근 재래식병기에 대한 軍 소요물량이 대부분 充足됨에 따라 방산업체의 稼動率이 低下되고 있으며,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 능력부족으로 고도첨단병기의 研究開發에 沈滯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東西 화해무드와 舊소련 및 동구권의 몰락등 일련의 변화로 일각에서는 방위산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長期 비전 (Vision)의 提示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금년** 들어 최초로 합참에서 중·장기 무기 체계기획서를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國防 中·長期 獲得計劃書가 7월말이면 선보이게 됩니다. 초안이 이미 작년 12월에 완성되었으며,

그동안 꾸준한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면적인 公開는 보안관계상 곤란하겠지만 분기별, 부문별, 방산 간담회의시 제한적인 說明會 추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계약업체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주계약 전문업체로 하여금 개략개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初期단계부터 업체의 의견을 적극 反映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업체에서는 이미 사업별, 건별 認知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계획된 軍 소요의 順延이나 물량變動 등의 변화로 방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는 주로 재래식무기체계에 국한된 사항일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할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일관성있는 추진만을 기대하기에는 많은 難點이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따라잡기식의 전력증강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이미 '91년부터 군사력 재정비를 위해 質 위주의 新군사력 건설을 도모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의 「변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업체는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개발과 투자에 보다 능동적으로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防産육성정책도 技術開發政策으로 轉換되었으며, 이에따라 연구개발(R&D)비 투자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안보위협외의 변화와 함께 自衛力의 현주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은 방위산업 역량여하에 크게 좌우된다고 봅니다. 업계의 가동율이 민수에 크게 못미치는 56%선(평균)에 머물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가동율** 문제의 대표적인 2大 공장은 총포와 탄약공장일 것입니다. 이러한 공장은 戰時대비를 위한 필수 艱요공장으로 최소한의 가동율 유지를 보장하는 한편, 기타 방산부문의 정밀부품 가공물량을 선별적으로 고려하여 가동율을 신장시킬 뿐만 아니라, 업체 스스로 民需品 생산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提高하도록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수, 군수兩부문의 동시적인 연계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까.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해외직구매는 지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技術導入생산과 국내 개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동안** 기술도입생산의 문제점은 기술다운 기술은 이전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가격은 직구매보다 高價였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절충교역(off-set)의 내용이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한 「質」 위주로 전환되고 있으며, 외국 原제작사들의 경쟁을 통해 우리가 요구하는 기술이전이 반영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요기술 도출, 협상, 확인 등 일련과정을 技術管理指針을 마련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특히 기술이전의 종합적 관리는 기술정보센타를 활용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개발로 유도해 나가야 하겠으나 기술능력, 限定된 財源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모든것을 국내개발로 추진할수 없기 때문에 중점 연구개발 대상을 선정, 추진해 나가고저 합니다. 이는 이번 長期계획서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過去** 국내개발은 시스템 중심으로 개발함으로써 주요핵심부품을 도입후 조립하여 왔으나, 이제 核心技術 部品를 選別的으로 병행 開發하고저 합니다.

한나라의 기술수준을 가능해볼수 있는 척도는 국방 과학기술에 있으며, 이에따라 방위산업 研究開發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평소 持論을 말씀해 주시지요?

**「연구개발** 만이 살 길」입니다. 최소한 15년전 부터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선행되지 못했던 점이 몹시 아쉽습니다. 이제부터라도 企業이 召命意識속에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 참여해야 될 것으로 보며, 정부측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技術主權主義로 불리우는 오늘날의 현실속에서 선진기술의 더 이상의 이전은 실질적으로 難望합니다.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연구개발속에서 찾아져야 하며,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 각계 각층에 확고히 뿌리내려야 할 것입니다.



國防研究開發의 活性化를 위한 具體的인 努力을 표명해 주신다면?

**「質」** 위주의 신군사력 건설과 국가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國防研究開發 政策을 다음과 같은 基調아래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중점 국내연구개발 대상의 선정입니다**

한국형 독자무기체계 개발과 성능개량을 통한 主戰투장비 개발과 병행하여 신소재, 신물질, 전자 광학, 소프트웨어등 주요 核心技術 개발을 集中的으로 推進해나갈 것입니다.

**\*범국가적 연구개발체제의 구축입니다**

기존의 국과연 중심으로 부터 탈피하여 연구개발 주체를 업체주도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大學의 기초연구와 國科研의 응용연구, 企業의 실용화 연구등이 일련의 순환고리를 형성하여 產·學·研의 連繫發展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국방연구개발비의 先투자 확대입니다**

연구개발비를 정부예산으로 先투자하며, 연구개발시 업체에 적정이윤을 보장하여 기술개발 촉진을 유발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研究開發費를 국방비 對比 현재의 2.6%에서 5~7% 수준으로 上向 조정해나갈 것이며, 또한 업체자체 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防產育成基金을 2천억원선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대담: 김영태)